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세계적인 추세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경기중재부 중재위원)

- (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감사
- (현)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현)수원 FC 이사
- (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부 운영위원(부회장)
- (현)인구보건복지협회 운영위원
- 제18,19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감사



회원들의 첫 직선제로 치뤄져 대선만큼 열기가 뜨거웠던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위철환 변호사. 2009년부터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재 감사로 재임 중인 경기중재부 위철환 위원을 만났다.

● ● 의미있는 선거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시하신 공약과 현재 구상하고 있는 각종 사안들 중, 이것만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과제가 있는지요?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사법시험 존치 혹은 예비시험제 도입입니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법사위 위원장도 예비시험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얼마나 성공적인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할 수 없고(제도가 운영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한번 만들어진 제도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존치와 사법시험 존치를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법시험 존치가 어렵다면 예비시험제도라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점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고 그 당위성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칭 '변호사 공선제도(변호사 강제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민사 합의부 사건 이상에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되, 돈이 없는 국민의 경우에는 현행의 법률구조 제도를 개선하여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져서 청년변호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여전히 돈이 없어서 법률조력을 못 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법원 입장에서 늘어나는 나 홀로 소송 때문에 절차 진행 자체가 힘들어지고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사 합의부 사건 이상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반드시 변호사들이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되,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 재원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 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무료변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각 지역에도 이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언론중재위원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 변호사회와 MOU 체결을 확대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을 때 경기중앙지방변호사님들로 하여금 직접 시청, 도청, 수원 역사 등에서 정기적으로 무료상담을 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고, 상담 후 정말 돈이 없어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 서비스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외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지방변호사회에서 독자적인 소송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률구조재단(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을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지식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변론활동 등을 무조건 무료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절실하게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이 있기 마련이고, 이는 비단 서울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확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가칭 '변호사 공선제도(변호사 강제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사회 갈등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해 각종 소송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조계 현장에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재판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분쟁의 중국적 해결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재판이 아닌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일환으로 아시아 국제중재센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올해 4월경에는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아시아 국제중재센터가 서울에 마련될 예정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3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당사자들은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며 상대방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주어 상처받은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다독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지난 2009년부터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정·중재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지요?

몇 해 전, 여당의 실세인 4선 의원 한 분이 정정보도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해당 의원이 법조인 모임에서 특정 종교 편향적인 축사를 한 적이 있다고 보도하였고, 해당 의원은 종교적인 내부모임일 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당시 심리에 참여하였는데 당사자인 해당 의원이 직접 심리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며 진지하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신청인 측에서도 한 발 양보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종교적인 문제가 연관된 민감한 사건이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랜 시간 당사자들을 설득한 끝에 어렵게 조정이 성립되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 외에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언론분쟁 사건의 조정을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정이나 중재를 담당하는 위원들의 권한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이나 중재를 하면 어떤 점이 좋고 왜 그런 제도가 필요한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중국적이라는 점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지도 모르고 했는데, 불복하고 싶다'며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를 성공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성공률이 늘어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늘어갈 것입니다.

또한, 조정·중재위원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과 사안파악 능력을 기르고, 조정이나 중재기법도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 변호사로서의 본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활발

하게 하고 계십니다. 활동량에 비례하여 육체적·정신적 소모도 클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시간관리 비결이 있는지요?

그동안에는 건강을 자신해 왔었기에 술도 많이 먹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뜻하지 않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특별히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황의 좋은 점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자 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시간이 나면 독서와 명상 등을 통하여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적게 먹고, 불필요한 술자리는 피하며 무엇보다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주경야독을 통해 지금은 성공

한 사회인이 되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나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주어진 생활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자, 스스로를 믿자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상황과 그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인생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굳이 한마디 하려면,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거나 게으른 생활을 하면서 상황을 탓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 진행 | 손정배 (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 (홍보팀 차장보)

위원동정

COMMISSIONERS

법원인사, 중재부장 4인 인사이동				
성명	중재부	전보일자	변동 전	변동 후
장진훈	서울제2중재부	2013.2.25.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성지호	서울제3중재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임병렬	서울제4중재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복규	서울제5중재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중재위원 사퇴				
구분	소속	성명	변동사항	사퇴 일자
법관인사	서울제7중재부	배준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3.2.14.
	경기중재부	장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3.2.25.
	강원중재부	김형훈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2013.2.25.
	제주중재부	오현규	서울고법 판사	2013.2.25.
위원사퇴	광주중재부	박남기	개인적인 사유	2013.2.15.
	서울제1중재부	장재윤	개인적인 사유	2013.2.28.

'플라톤의 그림자' 번역, 출간



박경우 위원(부산중재부,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플라톤의 그림자, 인간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역사」를 공동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입문서로 커뮤니케이션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적인 흐름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사장 선임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변호사)이 2월 5일 대구뮤지컬페스티벌 제3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2007년부터 매년 6~7월에 개최되며, 장 위원은 2013년 2월 5일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이사장으로 임기를 수행한다.

'여론(Public Opinion)' 번역, 출간



이동근 전 위원(2008 ~ 2011년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재임,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월터 리프먼이 쓴 언론학의 고전 「여론(Public Opinion)」을 번역, 출간했다. 이 전 위원은 올해 2월부터 머레이 주립대학교(미국 캔터키 주 소재)에서 조선대학교 여학연수생 지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세기의 명저로 평가되는 이 책으로 저자 월터 리프먼은 폴리처상을 수상한 바 있다.